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P대학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P University Libraries with Viewpoint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ocused on the first law and the fifth law

전 선 구 (Sun-Gu Jeon)**

이 용 재 (Yong-Jae Lee)***

< 목 차 >

I. 서론	IV.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
II. 이론적 배경	V. 대학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
III.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운영 현황	VI. 결 론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하여 국·공립대학 도서관 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고, 또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은 2018~2022년 동안의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 자료, 시설, 인력자원, 자료 구입비, 이용 및 이용자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와 사서의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랭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1법칙에서는 장서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 입지, 이용 시간 및 도서대출, 직원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제5법칙에서는 P대학도서관의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측면과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으로 '도서관 공간구성 전략 수립', '블루오션 전략 수립', '사서의 채용과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도서관경영, 사서, 랭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y operation through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To this end, the operation status of four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libraries was analyzed with the scope of the study as the Busan area. Furthermore, for an in-depth investigation, the P University library in Busan was examined as a case. The operation statu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libraries in the Busan region was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categories of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materials, facilities, staff, material purchase costs, and users from 2018 to 2022. In particular, there was a decrease in users and a shortage of librarians due to COVID-19. In the case study, the operation status of P University library was investigated focusing on the first and fifth laws of Ranganathan's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In the first law,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aspects of access to and use of the collection, library location, usage time and book lending, and staff. In the fifth law, the investigation was divided into service improvement aspects according to changes in digital technology of P University library and library environment improvement aspects according to changes in use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establishment of library space composition strategy', 'establishment of blue ocean strategy', and 'expansion of recruitment and deployment of librarian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plans.

KEYWORDS: Academic Library, Library Management, Librarian, Ranganathan,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gu8047@pusan.ac.kr / ISNI 0000 0005 1271 2053)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 ISNI 0000 0004 6472 8447)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8월 21일 • 최초심사: 2023년 8월 31일 • 게재확정: 2023년 9월 1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57-80, 2023. <http://dx.doi.org/10.16981/kliiss.54.3.202309.57>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도서관 운영의 기본 철학을 담고 있는 ‘도서관학 5법칙(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은 문헌정보학 전공 학자 및 학생, 사서, 사서교사 등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원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도서관학 5법칙’을 제시한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은 현대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서관사상가이다.

특히 그가 1931년에 발간한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은 근·현대 도서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문헌정보학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좌표가 된다(이현숙, 이용재, 2022). 이 법칙은 현재까지 문헌정보학에서의 기본 이론이자 도서관 운영에서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칙 덕분에 도서관은 자신의 기본과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이용자는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학 5법칙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운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학문공동체로서 대학교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경영효율의 극대화’, ‘서비스 품질의 고도화’, ‘도서관 공간의 복합화’, ‘정보서비스의 특성화’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김영기, 2010), 자기 주도적 학습, 협력, 융합, 창조를 지원하는 ‘학습공유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이영주, 2022).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정체성은 확장되고 있지만 도서관 현장은 전문 인력인 사서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¹⁾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들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장애가 생기면서, 대학도서관은 랑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서 기본이자 원리가 되는 도서관학 5법칙을 대학도서관 운영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학 5법칙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 조사(case study)는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물의 최종 산출물이며(Wolcott, 1992),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에 관한 각종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그 개체를 체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개체에 맞는 문제 해결의 방도를 구체적으로 강구하기에 유용한 조사연구법이다(정동열, 조찬식, 2007). 이 연구에서는 사례 조사를 통하여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이 대학도서관 현장의 맥락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뒤, 대학도서관들의 공통의 문제와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을 통하여 부산지역

1)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사서 수는 평균 1.1명이다. 출처: KERIS 2022년 대학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p.16.

국립 대학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다음 단계로 P대학교 도서관을 심층적인 사례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도서관학 제1법칙과 제5법칙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법칙은 도서관학 5법칙 중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 운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제5법칙은 도서관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임을 선포한 법칙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조사의 대상으로 부산지역 P대학도서관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연구자들이 P대학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P대학은 국내 거점 국립대 중 하나로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이고 P대학도서관은 부산 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서관이기에, 도서관학 제1법칙의 관점에서 책과 도서관의 이용을 현장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선정하였다.²⁾ 뿐만 아니라 P대학도서관은 최근 대학의 연구·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 재구성을 통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도서관학 제5법칙에 비추어 잘 운영되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도서관학 5법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기에, 여타 대학도서관들의 세부 측면을 비교·분석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학 5법칙

랑가나단은 인도에서 1928년 마드라스 도서관 협회(Madras Library Association)를 창립하고, 1931년 『도서관학 5법칙(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선포하였다. 그는 영국 유학을 통해 수많은 도서관을 탐방하였는데, 각 도서관마다 운영방식, 서비스, 건물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학을 전공하였던 그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도서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인 ‘도서관학 5법칙’을 정립하였다.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은 다음과 같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제1법칙: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Books are for use)

제2법칙: 모든 사람에게 그의 도서관(Every person his or her book)

2) 2022년 3월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기준 이용자 수 1,041,735명, 대출자 수 14,022명으로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 도서관 중 이용자 및 대출자 수가 가장 많다.

제3법칙: 모든 도서에게 그의 독자를(Every book its reader)

제4법칙: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도서관학 5법칙은 문헌정보학 이론과 도서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칙이다(이용재, 2013).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라는 두 가지 법칙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자료 이용과 도서관 성장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제1법칙은 도서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책은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도서의 이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의 입지는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둘째, 이용 시간은 휴일 없이 1년 내내 운영해야 하며, 셋째, 도서관 가구로 이용자에게 알맞은 높이의 서가, 안락한 의자 등을 비치해야 하고, 넷째, 도서관에 맞는 특별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제5법칙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도서관이 발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건축, 시설, 가구, 분류, 목록, 대출 등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竹內慙, 오동근 역, 2012).

그 외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 각각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법칙이나, 이 연구에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P대학도서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입 이용자 제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도서관 현장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어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점을 ‘이용’(제1법칙)과 ‘성장’(제5법칙)에 두었다. 도서관학 5법칙을 모두 적용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의 운영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제1법칙과 제5법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수희(2009)는 대학도서관의 정보 공유 공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황미영(2010)은 대학도서관의 창조적 인터페이스 요소를 공간적, 시설·설비적, 가구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Bailin(2011)은 협업 스터디 공간, 개인 집중 공간, 교류 공간,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 서비스 데스크 등 대학도서관 공간 배치에 고려해야 할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는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도서관 공간 구성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편영희, 박찬일(2015)은

문화적 커먼스 개념을 적용하여 대학도서관 공간구성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현숙, 이용재(2022)는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부산지역으로 한정하고 초등학교 도서관 304곳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심층조사를 위하여 부산의 D초등학교 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대학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재인(2007)은 긴꼬리 현상으로 불리는 롱테일(long tail) 현상을 도서관 서비스에 응용하여 도서관 2.0의 철학과 기술을 활용한 7가지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지연, 민지연(2008)은 도서관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는 웹 2.0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2.0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 수신, 정보전문가에 의한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구글 스칼라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희(2010)는 대학도서관의 효율성 평가에 사용되는 자원 요소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Tammaro(2020)은 이탈리아 사서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이탈리아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지욱, 이용재(2021)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학도서관에서 실시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자료에 대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시설·공간 서비스 혁신 등 지속가능한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특정지역 대학도서관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 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비추어 대학도서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도서관학 5법칙'의 관점에서 대학도서관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관 현장의 맥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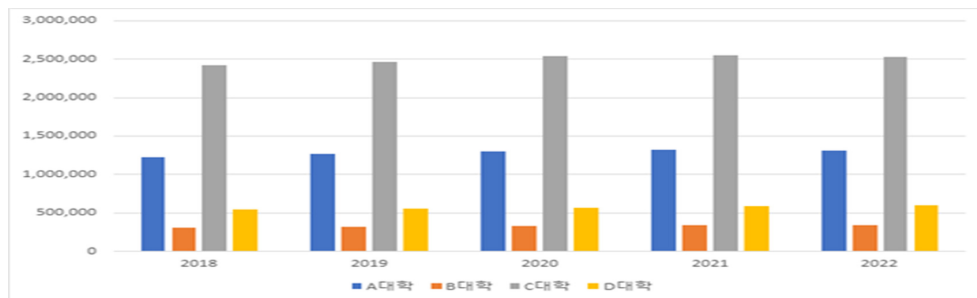
III.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운영 현황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에서 제공한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2018~2022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으로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 자료', '시설', '인적자원', '자료 구입비', '이용 및 이용자'로 하여 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학도서관 소장 및 구독 자료

부산지역의 국·공립대학교는 2022년 3월 기준 4개교이다. 대학 규모는 A그룹 2개교, B그룹

1개교, C그룹 1개교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대학 규모의 기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분류에 따른 것으로, 대학 A그룹(재학생 수 10,000명 이상), 대학 B그룹(재학생 수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대학 C그룹(재학생 수 5,000명 미만)으로 나뉜다. 해당 대학도서관의 소장 자료 수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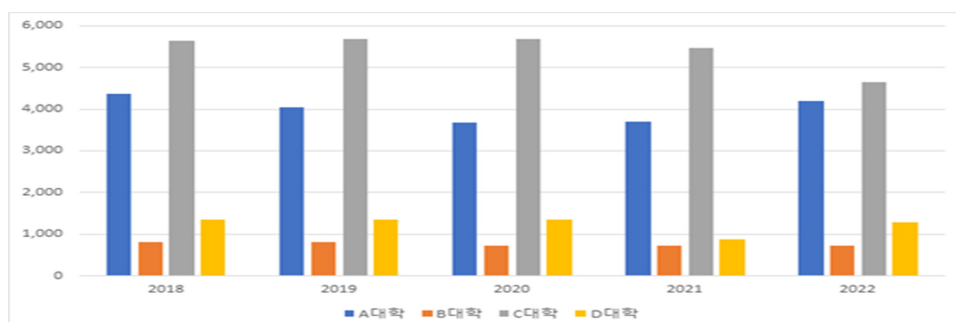


(2022. 3. 1. 기준, 단위: 권)

<그림 1>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2018~2022)

2. 시설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도서관 건물 연면적은 A대학도서관 23,094m², B대학도서관 6,105m², C대학도서관 35,856m², D대학도서관 7,741m²로 조사되었다. 최근 국·공립대학 도서관은 리모델링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열람석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A대학도서관 4,185석, B대학도서관 719석, C대학도서관 4,645석, D대학도서관 1,288석으로 최근 대학도서관의 열람석 수가 줄어든 것처럼 통계가 나타나지만 이는 각 도서관의 리모델링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2022. 3. 1. 기준, 단위: 개)

<그림 2>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 열람석 수(2018~2022)

3. 인적자원

2022년 3월 기준 부산지역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직원 수는 A대학도서관 19명, B대학도서관 5명, C대학도서관 52명, D대학도서관 14명으로 나타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A대학교 도서관 사서자격증 소지자 19명, B대학교 도서관 사서자격증 소지자 5명, C대학교 도서관 사서자격증 소지자 48명, 미소지자 4명, D대학교 도서관 사서자격증 소지자 13명, 미소지자 1명으로 파악되었다. 급수별 사서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사서 현황

(2022년 3월 기준, 단위: 명)

대학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미소지자	계
A대학	5	14	0	0	19
B대학	1	4	0	0	5
C대학	12	36	0	4	52
D대학	5	8	0	1	14

4. 자료 구입비

2022년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를 확인한 결과 등록금 동결, 입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대학 재정 악화에 따라 2020년~2021년 대학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감소하였다가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대학 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 구입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대학 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 구입비 비율이 전년도(2021년)의 경우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대학도서관에서는 양질의 도서 구입을 위해 자료 구입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2>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자료 구입비 현황(2018~2022)

대학	최근 3년간 자료구입비(결산, 단위: 원)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율
A대학	1,928,544,493	1,860,262,970	2,073,803,242	+ 11.48%
B대학	195,505,450	185,862,571	219,770,697	+ 18.24%
C대학	5,753,244,780	5,601,337,370	5,277,182,260	- 5.79%
D대학	890,323,630	763,644,936	959,356,990	+ 25.63%

〈표 3〉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대학 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 구입비 비율(2021)

대학	2021년 대학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구입비 비율(단위: 원)		
	자료구입비	대학총결산	대학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A대학	1,860,262,970	264,421,011,271	0.7%
B대학	185,862,571	36,171,171,105	0.5%
C대학	5,601,337,370	453,527,319,007	1.2%
D대학	763,644,936	108,657,868,926	0.7%

〈표 4〉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대학 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 구입비 비율(2022)

대학	2022년 대학총결산 대비 도서관 자료구입비 비율(단위: 원)		
	자료구입비	대학총결산	대학총결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A대학	2,073,803,242	225,071,240,134	0.9%
B대학	219,770,697	35,144,940,339	0.6%
C대학	5,277,182,260	410,450,562,159	1.3%
D대학	959,356,990	110,441,444,687	0.9%

5. 이용 및 이용자

부산지역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각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매년 조사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통계에서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로부터 사회가 단계적 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수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이용자 현황(2018~2022)

대학	이용자 현황(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A대학	1,531,863	1,185,858	799,450	753,363	664,640
B대학	91,103	178,166	165,394	34,513	27,773
C대학	3,732,580	2,805,793	3,255,500	768,117	1,041,735
D대학	546,904	540,946	413,362	262,019	65,137

IV. P대학도서관 운영 현황

부산지역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분석에 이어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로 부산 P대학도서관을 선정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946년에 설립된 P대학도서관은 P대학의 개교와 함께 설립된 도서관이다. P대학은 2024년 글로벌 대학 평가(QS) 611-620위권 내에 속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다. P대학의 학문 활동 및 인재 양성이라는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P대학도서관은 연구·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공간 재구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P대학도서관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P대학도서관 현황³⁾

(2023. 3. 1. 기준)

구분	현황	구분	현황
면적	35,856m ²	장서 수 (학생 1인당 장서 수)	2,531,319책(92.4책)
도서관 운영인력	52명(사서: 48명)	이용자 수 / 대출 책 수 (2022)	1,041,735명 / 217,864책
학생 수	27,386명	예산	자료구입비: 1,092,730,000원 비도서자료구입비: 4,163,033,000원 총 자료구입비: 5,255,763,000원
이용가능 시간	중앙도서관: 09:00~21:00 새벽별도서관: 06:00~23:00 새벽별당: 24시간 운영	총열람석 수	4,645석

본 연구에서는 랭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에 비추어 P대학교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도서관학 제1법칙으로 본 도서관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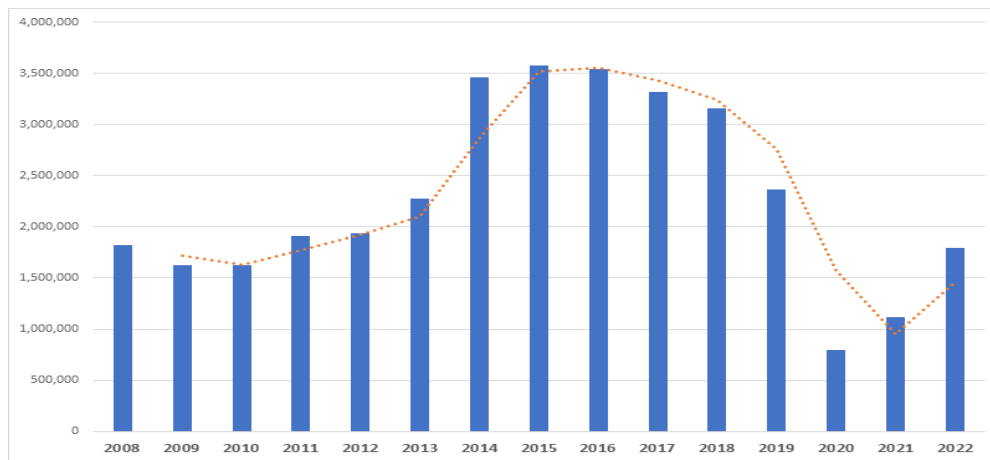
도서관학 제1법칙은 ‘도서는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법칙이다. 과거 도서관에서는 제1법칙이 당연하지 않았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도서관학 5법칙 중 “도서는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를 첫 번째 법칙으로 내세운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로서의 도서관학 제1법칙이 P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장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입지, 이용 시간 및 도서대출, 직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부산대학교도서관 (2023), 2023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통계연보

가. 장서 접근 방식 및 이용 활성화

1946년도에 개관한 P대학도서관은 오랫동안 폐가제로 운영하여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자료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대학 캠퍼스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당시 도서관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부산대학교도서관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폐가제(closed stack system)가 개가제(open stack system)로 전환되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 개가제 전환 이후 이용자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행본, 전자자료, 학술 DB 등 많은 자료를 구입·구독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P대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크게 증가하여 도서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시 폐가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용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인 도서관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방역 강화, 마스크 착용 등 제한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열람 좌석도 한 칸을 띄어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최대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로 도서관 이용자 수는 회복 수준에 있다.



〈그림 3〉 P대학도서관 출입자 수 현황(2008~2022)

또한 도서관학 제1법칙을 살펴보면 단순히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대학도서관을 살펴보면 도서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안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고안하고 전개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을 다음의 ‘〈표 7〉 독서·문화 프로그램’, ‘〈표 8〉 도서관 이용 교육’, ‘〈표 9〉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표 7〉 P대학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3. 3. 1. 기준, 단위: 명)

연도	추진횟수(회)	대학(원)생	교직원	지역주민	계
2018	34	1,192	17	552	1,761
2019	15	910	19	42	971
2020	11	685	1	14	700
2021	79	2,134	22	619	2,775
2022	49	1,266	88	180	1,534

〈표 8〉 P대학도서관 도서관 이용 교육 현황

(2023. 3. 1. 기준, 단위: 명)

연도	구분	정기교육		학술DB교육		맞춤교육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구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8	94	558	59	954		중앙도서관	156	4,286	369	7,166
						법학도서관	3	130		
						의생명과학도서관	32	844		
						나노생명과학도서관	25	394		
2019	94	558	59	954		중앙도서관	156	4,286	369	7,166
						법학도서관	3	130		
						의생명과학도서관	32	844		
						나노생명과학도서관	25	394		
2020	24	244	98	685		중앙도서관	105	5,418	270	6,975
						법학도서관	0	0		
						의생명과학도서관	13	243		
						나노생명과학도서관	30	385		
2021	50	777	55	500		중앙도서관	136	6,196	274	8,500
						법학도서관	1	120		
						의생명과학도서관	10	523		
						나노생명과학도서관	22	384		
2022	81	1,619	95	692		중앙도서관	108	6,051	298	8,362
						법학도서관	2	10		
						의생명과학도서관	12	549		
						나노생명과학도서관	-	-		

〈표 9〉 P대학도서관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현황

(2023. 3. 1. 기준, 단위: 건)

연도	구분	상호대차 신청 및 제공 건수		비고
		신청	제공	
2018		801	1,438	
2019		580	1,218	
2020		576	852	
2021		585	1,001	
2022		583	1,242	
계		3,125	5,751	

나. 입지

최근 P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도서관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공간이다(〈표 10〉 참조). 다만, 최근 대폭적인 공간 재구성(리모델링)을 거친 새벽별도서관만 이용자 수를 완전히 회복하였고, 다른 도서관들은 이용자 수가 아직 적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하지만, 언덕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책을 빌릴 수 있다.

과거 도서관은 도서의 보존을 위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도심의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물 내부에서도 과거의 대학도서관은 미로와 같이 좁고 어둡고 통풍이 안 좋은 곳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의 발길을 유도하지 않고, 도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열중하였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하지만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좋은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내부에서도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기 위해 개방적인 구조를 갖추고 다각도의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표 10〉 P대학도서관 건물별 출입자 수

(2023. 3. 1. 기준, 단위: 명)

연도 \ 관별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법학도서관	의생명과학 도서관	나노생명과학 도서관	미리내 열람실	계
2019	632,786	1,412,381	85,042	130,105	101,570	-	2,361,884
2020	129,730	586,063	16,984	57,057	4,400	-	794,234
2021	172,812	768,066	16,471	95,111	7,612	53,479	1,113,551
2022	252,400	1,419,666	15,253	28,399	19,499	62,983	1,798,200

다. 이용시간 및 도서대출

현재 P대학도서관의 이용 시간을 보면, 중앙도서관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3시까지이다. 새벽별도서관은 평일, 일요일, 공휴일 6시부터 23시까지이다. 시험기간에는 5시부터 24시까지이고, 새벽별당(새벽별도서관 2층)은 24시간 운영한다.

〈표 11〉에서 나타나듯 2022년 새벽별도서관 리모델링으로 보존서고 공간이 열린 학습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새벽별도서관에는 보존 도서 일부만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새벽별도서관의 자료 대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현재 P대학도서관의 자료 대출은 주로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자료 대출량은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도서관학 제1법칙에 따라 도서의 이용이 더욱 일어나게 하려면, 도서관 이용 시간 연장, 도서관 인력의 탄력적 운영 등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생기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유경중, 박일중, 2007)하여 도서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표 11〉 P대학도서관 자료 대출 현황

(2023. 3. 1. 기준)

관별 연도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법학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 도서관		계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아미캠퍼스		양산캠퍼스		종수	책수	종수	책수
2019	77,615	191,875	7,838	19,968	3,056	8,338	3,932	4,941	10,640	16,507	3,810	5,305	106,891	246,934
2020	58,744	121,346	6,559	13,999	2,043	4,305	4,017	5,064	9,079	12,967	2,478	3,127	82,920	160,808
2021	60,479	137,306	2,181	3,781	1,199	2,692	3,755	4,973	8,282	12,471	2,907	4,083	78,803	165,306
2022	66,040	139,815	1,606	1,925	1,520	2,964	4,023	5,282	8,222	11,752	3,365	4,477	84,776	166,215

라. 직원

P대학도서관은 2022년 기준 총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한 인원이자, 분관 직원들도 포함한 수치이다.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사서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교 해봐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의 사서 자격증 취득 현황을 〈표 12〉와 같이 살펴보면, 1급 정사서 9명, 2급 정사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학 제1법칙’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사서를 배치하여 자료 선정(Mason, 1990),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용 교육, 북큐레이션, 독서상담, 디지털도서관 구축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이현실, 2007). 나아가 대학의 기본시설이자 중핵 기구로서 대학도서관이 충분한 수의 전문직 사서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대학의 학문 활동을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학습 활동의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12〉 P대학도서관 교직원 현황

(2023. 2. 28. 기준, 단위: 명)

연도	구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계	
		일반직	대학회계직	일반직	대학회계직	일반직	대학회계직	일반직	대학회계직
2019		12	1	23	8	-	-	35	9
2020		9	2	21	7	-	-	30	9
2021		11	1	25	8	-	-	36	9
2022		8	1	30	8	-	-	38	9

2. 도서관학 제5법칙으로 본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학 제5법칙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라는 법칙이다. 제1법칙부터 제4법칙까지가

도서관 활동을 다루는 데 대해, 제5법칙은 도서관이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중요하고도 영속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竹內蒔, 오동근 역, 2012). 이러한 원칙 속에서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디지털 기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환경 개선으로 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도서관학 제5법칙에 근거하여 P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디지털 기반 기술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의 독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에서도 디지털 기반 기술을 반영하여 이용자 서비스의 변화를 모색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AI-키오스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정보박람회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요구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변화함으로써 도서관은 랑가나단이 주장하는 “천천히, 그러나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竹內蒔, 오동근 역, 2012). 이와 관련하여 P대학도서관의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정보박람회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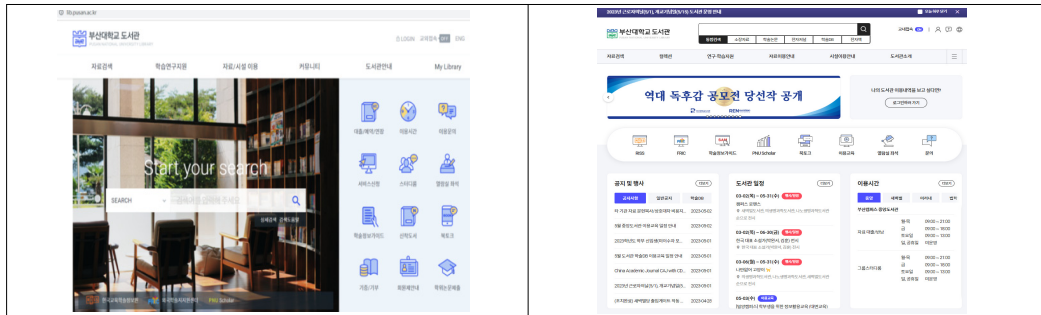
(1)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

최근 국내에서는 대학도서관들의 홈페이지를 갱신·개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는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검색 기능의 개선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랑가나단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도서를 결정하는 것은 도서의 크기나 저자명(문학을 제외하고)이 아니라 주제라고 말하며, 도서의 서가 배열은 주제 배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anganathan, 최석두 역, 2005).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주제별로 탐색하며 원하는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 추천 도서, 베스트셀러, 북큐레이션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선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리뉴얼된 P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 역시 검색 화면을 단순화하고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메뉴의 가시성과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선되었다. 기존 홈페이지 구축에서부터 AI 챗봇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는 대학의 특징과 도서관별 특성을 나타내며 하나의 유기체로 성장하고 있다.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P대학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그림 4〉 P대학도서관 기존 홈페이지 화면

〈그림 5〉 P대학도서관 신규 홈페이지 화면

(2)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정보박람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닐 스티븐스의 소설의 배경이 되는 가상 세계 이름(Stephenson, 1992)인 메타버스는 초월과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서상원, 2023)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메타버스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가상세계에서 이용 교육 및 도서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다(이지옥, 이용재, 2021).

이를 바탕으로 P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박람회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이벤트로 전자자료 이용안내 동영상 시청 및 체험,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전자정보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림 6〉 〈그림 7〉 P대학도서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정보 박람회

나.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환경 개선

교육부의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2023)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별

소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큐레이션이 실시되고,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자책을 구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이미 많은 이용자들에게 익숙해졌으며 도서관에서도 뉴노멀 시대(이지욱, 이용재, 2021)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를 취해야 한다(竹內栞, 오동근 역, 2012). 이와 관련하여 P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요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공간 개선과 전자자료 확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서관 공간 개선

도서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특성 변화에 따른 도서관 공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P대학도서관은 대학 내 연구·학습을 위한 핵심 정보서비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서 보관 공간의 부족으로 자료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공간의 대부분을 서가와 자료가 차지하고 있어,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일반 열람공간 및 그룹스터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었다. 과거와 달리 이용자들은 개방된 열람석과 24시간 열람이 가능한 공간,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자유로운 협업공간(노영희, 김윤정, 2019)과 학습 공유 공간(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을 희망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P대학도서관은 국내 최상위 수준의 거점 국립대이자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구성원의 학습·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표 13>과 같이 도서관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학습·연구 활동이 가능한 학습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 열람공간과 그룹스터디룸 공간 확대를 통해 과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초기 도서관학 제5법칙에서 '성장'을 도서의 확충만을 생각하였으나 현재의 도서관은 고도로 특수화되고 복잡한 성격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적 측면, 서비스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용재, 2021).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따른 P대학도서관의 환경 변화는 도서관학 제5법칙을 반영한 운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P대학도서관 환경개선 현황

(2023. 6. 1. 기준)

연도	P대학도서관 환경개선 현황	비고
2021년 11월	새벽별도서관 <스마트 러닝커먼스 & Innovation Park> 조성	
2022년 04월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러닝커먼스> 조성	분관 최초
2022년 12월	새벽별도서관 <새벽별당> 조성	
2023년 03월	미래내열람실 <아카데미> 조성	대학원생 및 강사 학술연구활동 지원



〈그림 8〉 P대학도서관 환경개선 사진4)

(2) 전자 자료 확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내용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출판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장수현, 박윤서, 남영준, 2022).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도서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전자 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정동진, 임동규, 지예은, 2021).

이처럼 독서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증대,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P대학도서관은 전자자료 확충에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배정하고 구독자원 및 전자자원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독서 활동과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P대학도서관은 인쇄본의 수집 이외에 전자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웹 DB)의 확충과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학 제5법칙의 관점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14〉 P대학도서관 접속 매체별 전자책 대출 현황

(2023. 3. 1. 기준)

연도	구분	PC		모바일		계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		12,749	18.4	56,409	81.6	69,158
2019		10,744	17.2	51,869	82.8	62,613
2020		10,343	17.0	50,438	83.0	60,781
2021		10,625	18.1	48,234	81.9	58,859
2022		10,080	18.2	45,228	82.0	55,308

4) 부산대학교도서관 (2023).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진화는 계속됩니다[사진]. <https://lib.pusan.ac.kr/re-modeling>

〈표 15〉 P대학도서관 전자 자료 구입비 현황

(2023. 3. 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자저널 /Web DB	국내	190,842	261,484	266,611	281,228	287,357
	국외	3,593,269	3,475,775	3,504,754	3,522,968	3,800,104
	소계	3,784,111	3,737,259	3,771,365	3,804,196	4,087,461
e-Book	국내	111,348	99,320	94,474	85,839	97,266
	국외	56,259	110,590	89,361	71,590	60,193
	소계	167,607	209,910	183,835	157,429	157,459
합계		3,951,718	3,947,169	3,955,200	3,961,625	4,244,920

V. 대학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부산지역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심층조사의 대상으로 부산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여 랭가나단 도서관학 제1법칙과 제5법칙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운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의 학습·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간 구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그룹스터디룸, 집중열람공간 등 다양한 학습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협업·토론 공간, 스마트러닝, 증강·가상 공간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구성 전략이다. 이러한 방안은 도서관학 제5법칙(“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의 관점에서 도서관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블루오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COVID-19이 주는 충격과 영향에 대응하면서 대학도서관에서도 서비스와 이용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향후 이용자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블루오션을 발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캠퍼스 전역에서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상공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발견하거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치를 발견하여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발견하고 이용자와 대학도서관을 연결하여 도서관의 블루오션을 발견한다면 도서관학 제1법칙(“도서는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과 제5법칙(“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에서 말하고 있는 도서·이용자·도서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 배치를 확대한다. 부산지역의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000명당 사서수는 1.1~2.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서 1인당 약 500명~1,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학도서관의 사서 수는 열악한 수준이다. 대학도서관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도서관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를 확보하고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VI. 결 론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은 수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도서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대학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람석이 부족하며 대학도서관 사서와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서관을 위협하는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며 대학의 기본시설로서, 연구·학술활동의 중심이고 대학의 학문 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 도서관은 이러한 위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국·공립 대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심층조사로 부산의 P대학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랑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 중 제1법칙과 제5법칙의 관점에서 현장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맥락과 구체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부산지역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고, 도서관학 5법칙이라는 기본원리를 기초로 부산의 P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심층적인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러 선행연구에서 문제로 제시한 대학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관인력, 도서관 자료 보존 공간 개선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V장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부산 지역 국립대학 도서관들의 현황을 이용,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심층적인 사례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P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대학도서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전체를 적용하여 살펴보는 사례연구, ‘도서관학 5법칙’을 통하여 P대학도서관과 유사한 규모의 지역거점국립대학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를 살펴보는 연구, 도서관마케팅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교육부 (2019).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세종: 교육부.
- 김영기 (2010).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A'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15(2), 115-137.
- 노영희 (2010). 대학도서관의 효율성 평가 자원요소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71-88.
-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부산대학교 도서관 (2023). 2023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통계연보.
- 부산대학교 도서관 (2023).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진화는 계속됩니다[사진]. 대한민국. <https://lib.pusan.ac.kr/re-modeling>
- 서상원, 김규환 (2023). 국내 공공도서관 메타버스 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활용방향성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259-28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259>
- 안수희 (2009). 정보공유공간 적용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통합서비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경종, 박일종 (2007). 대학도서관 이용조사를 통한 경영개선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3), 93-117. <https://doi.org/10.3743/KOSIM.2007.24.3.093>
- 이영주 (2022).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학습공유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제안: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111-123.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111>
- 이용재 (2013). 도서관인물 평전. 부산: 산지니.
- 이용재 (2021). 도서관 경영전략과 마케팅. 서울: 청람.
-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33-15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이지연, 민지연 (2008). 라이브러리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13-231. <https://doi.org/10.4275/kslis.2008.42.1.213>
- 이지옥, 이용재 (2021). 뉴노멀시대 대학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357-377.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이현숙, 이용재 (2022). 도서관학 5법칙으로 본 학교도서관 운영과 개선방안: 부산 D초등학교

- 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171-19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171>
- 이현실 (2007). 대학도서관 2.0에서 사서의 업무방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147-168.
- 장수현, 박윤서, 남영준 (2022). Z세대 대학생들의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코로나 19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181-20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4.181>
- 정동열, 조찬식 (2007). 문헌정보학 조사연구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동진, 임동규, 지예은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도서관 환경 변화 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도서관정책연구소.
- 조재인 (2007). 롱테일 현상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73-90.
<https://doi.org/10.16981/kliss.38.3.200709.73>
- 편영희, 박찬일 (2015). 문화공유지(Cultural Commons)개념에 의한 대학도서관의 공간프로그램과 디자인방법의 특성: 타마미술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3), 48-58. <https://doi.org/10.14774/jkiid.2015.24.3.048>
- 황미영 (2010). 이토토요의 도서관 공간에 나타나는 창조적 인터페이스요소에 관한 연구: 타마미술 대학신도서관을 사례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3), 205-213.
- Bailin, K. (2011). Changes in academic library space: a case study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42(4), 342-360.
<https://doi.org/10.1080/00048623.2011.10722245>
- Mason, R. (1990). What is an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122-138. <https://doi.org/10.2307/40323396>
- Ranganathan, S. R. (1957).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최석두 옮김 (2005). 도서관학 5법칙.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Stephenson, N. (1992). Snow Crash. New York: Bantam Books.
[https://doi.org/10.1016/0016-3287\(94\)90052-3](https://doi.org/10.1016/0016-3287(94)90052-3)
- Tammaro, A. M. (2020). Covid-19 and libraries in Italy.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52(3), 216-220. <https://doi.org/10.1080/10572317.2020.1785172>
- Wolcott, H. F. (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D. LeCompte, W. L. Millroy &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竹内慙 (2012). (랑가나단 박사의 도서관학의 5법칙에서 배우는) 도서관이 나아갈 길. 오동근 옮김 (2012). 대구: 태일사.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u-Hee (2009). A Study on Information Commons, an Integrated Services Model for University Librarie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Cho, Jane (2007). A Critical overview of long tail and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73-90.
<https://doi.org/10.16981/kliss.38.3.200709.73>
- Hwang, Mee-Young (2010). A study on the creative interface of library on ito toyo: focus on the Tama Art University New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9(3), 205-213.
- Jang, Su-Hyun, Park, Youn-Suh, & Nam, Young-Joon (2022). A study on the e-book usage behavior of university library by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impact of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4), 181-20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4.181>
- Jeong, Dong-Jin, Lim, Dong-gyu & Ji, Ye-Eun (2021). Survey Report on Environmental Changes in University Libraries Due to COVID-19. Seoul: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
- Jeong, Dong-Youl & Cho, Chan-Sik (2007).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im, Young-Ki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cademic library: focus on the 'A'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Journal of Humanities, 15(2), 115-137.
-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Lee, Hyeon-Sook & Lee, Yong-Jae (2022). A stud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chool libraries with viewpoint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ocused on 'D' Elementary School Library in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171-19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171>
- Lee, Hyun-sil (2007). A study on trends of the librarian's task in academic library 2.0.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1),

147-168.

- Lee, Jee-yeon & Min, Ji-Yeon (2008). Empir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user perception and requirements of library 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213-231. <https://doi.org/10.4275/kslis.2008.42.1.213>
- Lee, Ji-Wook & Lee, Yong-Jae (2021). A study on the sustainable academic library services in the New Norm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357-377.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357>
- Lee, Yong-Jae (2013). *Library Thinkers*. Busan: Sanzini.
- Lee, Yong-Jae (2021). *Library Management Strategy and Marketing*. Seoul: Chungnam.
- Lee, Yong-Jae, Park, Kyung-Seok, & Kim, Bo-In (2012).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y: focused on 'P'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33-15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Lee, Young-ju (2022). Proposal of spatial composition for university libraries as learning commons for educational innov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 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7(3), 111-124. <https://doi.org/10.35216/kisd.2022.17.3.111>
- Ministry of Education (2019). *2nd Academic Libraries Development Plan (2019~20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oh, Young-Hee (2010). A study on identification of library resources for evaluating efficiency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71-88.
- Noh, Young-Hee & Kim, Yoon-Jeong (2019). A study on the user recognition of library complex culture sp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23). *2023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tatistical yearbook*.
-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23). *The evolution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ntinues [picture]*. Korea. <https://lib.pusan.ac.kr/re-modeling>
- Pyun, Young-Hee & Park, Chan-Il (2015). Analysis of the university library's space program and design characteristics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Commons': focused on the Tama Art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4(3), 48-58. <https://doi.org/10.14774/jkiid.2015.24.3.048>

Ranganathan, S. R. (1957).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Translated by Choi, Suk-Doo (2005).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Seo, Sang-Won & Kim, Gyu-Hwan (2023). A study on the operation cases and usage direction of metaverse cultural programs in domestic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59-28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1.259>

Yoo, Kyeong-Jong & Park, Il-Jong (2007). A management improvement study by the use survey of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3), 93-117. <https://doi.org/10.3743/KOSIM.2007.24.3.093>